

사회

Social Affairs

7 **광주일보**
제17432호 2006년 4월 26일 수요일

신종 '룰루랄라' 도박 광주·목포에서 기승 PC방서 영업...전남지역 확산

합법적인 성인 PC방으로 가장한 신종 도박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청은 25일 PC방 컴퓨터에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 영업을 해 온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모(35·광주시 북구 신안동)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PC방에서 불법 도박을 한 김모(32·광주시 북구 운암동)씨 등 손님 10명을 도박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목포경찰도 이날 성인 PC방을 개장,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해 온 혐의(도박장 개설)로 박모(43·목포시 상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손님 21명을 불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 등은 PC방에 있는 컴퓨터에 도박 프로그램인 '룰루랄라 바두기'(lululala badugi)와 '바카라'를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현금과 받고 프로그램 사이버 마니인 '콩'과 포인트를 판매하고 게임 후 남은 포인트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엔 적발된 '룰루랄라' 외에 같은 형태의 도박 게임장이 광주 시내에 7~8곳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도박장을 운영하는 업주는 5년 이하 징역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종업원은 도박개장 방조죄를, 불법 도박을 한 사람들에게는 도박 혐의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마약탄 술 먹이고 사기도박 6,000만원 가로챈 7명 체포

은행간부에게 마약을 탄 소주를 마시게 한 뒤, 도박을 하면서 6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46)씨 등 7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월 22일 순천시 서면 S식당에서 "창업자금을 빌려주겠다"며 불러낸 이모(45·대전 모 은행 간부)씨에게 마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함께 '월남뽕'이라는 도박을 해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마약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 3.2g을 2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 3천500만원을 준비, 이씨가 돈을 잃으면 빌려주는 수법으로 8시간 동안 도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의 내연녀 집에서 히로뽕 1.6g을 압수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찜찜한 ‘중간고사 부적’ 제발 그만...”

오는 5월 초 중간고사를 치르는 광주 W 중학교 1학년생 이모(14)양은 최근 학원 친구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잇따라 받았다.

“이 문자를 이십 명에게 보내면 이번 중간고사 대박 터뜨린다. 안 보내면 망할 시작”

“이 문자를 5번 돌리면 평균 80, 10번 돌리면 85, 15번 돌리면 90, 20번 돌리면 95, 30번 돌리면 100점”

70년대 ‘행운의 편지’가 ‘디지털 부적’으로 진화

이양은 처음 친구의 장난으로 알고 웃어넘겼다. 하지만 “시험을 망친다”는 내용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결국 한밤중 다른 친구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공부하다 문자메시지만 한다”고 부모로부터 혼란 것은 물론이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스킵 메시지 발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된 ‘중간고사 부적’ 때문이다.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



면 시험을 망칠 것이라는 것. 과거 70년대 유행했던 ‘행운의 편지’와 같은 형태가 ‘엄지족’ 세대에 ‘디지털 부적(符籙)’으로 진화한 것이다.

학생들은 문자메시지의 ‘찜찜한’ 내용 때문에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도 ‘중간고사 부적’ 논란으로 시끄럽다. ‘호프’(www.horcom.com) 등 일부 인터넷 포털에선 ‘중간고사 잘 보는 부적’이 주간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다.

학생들은 느닷없는 이 메시지 때문에 시간은 물론, 귀중한 ‘알’(메시지 발송량)을 소비하고 있다. 모 통신사의 월 1만6천원짜리 휴대전화 정액제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알’ 제공량은 2천200개, 문자메시지 1건당 2개의 ‘알’이 소요되므로 55통의 ‘부

적’을 받고 다시 20통씩 보냈다면 ‘알’이 모두 떨어지는 셈이다. 가정과 학교에서도 고심이다. 폐해가 심각하자 네티즌끼리 “부적을 보내지 말자”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시간 뺏기고 돈 낭비하고 학생·학부모·학교 ‘고심’

중학교 1년생 딸을 둔 이모(여·43·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는 “학부모들 사이엔 ‘중간고사 부적’이란 게 어린 학생들의 문자메시지 발송량을 늘리려는 일부 통신회사의 작풍일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전남경찰청 ‘오토바이 순찰대’ 발대

전남지방경찰청 오토바이 순찰대가 25일 발대식을 가졌다. 4조 20대로 운영되는 순찰대의 오토바이는 대당 3천만 원인 미국 할리데이비슨 17대와 독일 BMW 3대. 출·퇴근길 교통 혼잡지역과 사고 위험지역,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는 곳에 투입된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의대 가려고 과학고서 일반고 전학한 학생

성적부진 비관 자살

의대 진학을 꿈꾸며 과학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한 학생이 자신의 목표대로 성적이 오르지 않자 이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5일 새벽 5시50분께 순천시 H아과

트 출입문 지붕에 김모(17·순천 모 고교 2년)군이 피를 흘린 채 숨져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어머니는 경찰에서 “아들이 바람을 쐬러 나간다고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12층 통로에서 이미 뛰어내린 뒤였다”고 말했다.

김군은 과학고를 다니다 지난해 7월 의대 진학을 권유하는 주위의 뜻을 따라 1등급 내신을 받기 쉬운 순천의 인문고로 전학했다.

김군은 책상에 ‘올해 목표 전교 1등’이라고 써붙였으며, 과학경시대회도 준비 중이었으나, 전체 성적이 상위 2%에 그치지 못했다고 학교 교사들은 전했다. 특히 중간고사 기간인 지난 24일에는 과학시험에서 2~3문제를 틀렸다는 것을 알자 크게 낙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은 이날 시험이 끝난 뒤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몸이 아프다”며 조퇴를 했다. 대신 집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대학교수인 아버지와 공부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학년 때 김군을 가르쳤다는 모 교사는 “1등급(상위 4%·전교 15등)내에만 들면 의대진학에 큰 문제가 없는데, 김군은 꼭 1등을 하고 싶어했다”면서 “주변의 기대를 어린 학생이 이겨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나원침 (6814) 김홍두



연제2차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부지 중 353부 3534부
문의 (062)366-4220

보험금 타려고 교통사고 허위신고

광주 동부경찰은 25일 L보험사 등 3개 회사에서 6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11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박모(42·화순군 화순읍)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공무원이 문서조작 1,600만원 ‘꿀깍’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5일 허위로 공문서를 만들어 1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목포시청 공무원 A(56·토목5급)씨를 구속하고, B(35·전기7급)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위생매립장관리소장이던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2004년 목포시 위생매립장내 수중모터를 수리하면서 모터를 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1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

○A씨는 또 중국 여행을 가면서 출장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제8회 **함평 나비비 대축제**
2006.4.29(토) ~ 5.8(월) 10일간
함평 나비비 대축제
2006.4.29(토) ~ 5.8(월) 10일간
함평 나비비 대축제
2006.4.29(토) ~ 5.8(월) 10일간